

로저 그린 박사,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 강의 11, 계몽주의

© 2024 로저 그린과 테드 힐드브란트

저는 약간의 경건한 내용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본문과 모든 것에 대한 토론을 제외하고는 금요일에 몇 번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 칼빈의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를 읽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을 잊어버려서 제가 그것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경건한 생각을 위해, 어떤 것들을 통해 오늘 아침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시작 부분, 1권, 1장을 읽고 있는데, 그가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는 우리가 소유한 거의 모든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신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앞서고 낡는 많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첫째,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는 즉시 자신의 생각을 신에 대한 관상으로 돌리지 않고는 살 수 없으며, 신 안에서 살고 움직입니다(행 17:28).

분명히, 우리가 부여받은 위대한 선물은 우리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는 한 분의 신 안에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음, 하늘에서 이슬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러한 혜택에 의해, 우리는 마치 개울에 이끌리듯이 샘으로 인도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가난은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은총을 더 잘 드러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반역이 우리를 던져 넣은 비참한 파멸은 특히 우리가 위를 바라보도록 강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식과 배고픔 속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깨어나면서 겸손을 배울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참으로 비참한 세상이 있고, 우리는 그로 인해 신성한 옷을 벗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나체는 엄청난 양의 불명예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의식에 찔려 적어도 신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무지, 허영심, 가난, 허약함, 그리고 더 나아가 타락과 부패에 대한 느낌에서 우리는 지혜의 참된 빛, 건전한 덕, 모든 선의 충만함, 그리고 의의 순수함이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에 의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묵상하도록 재촉받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불만을 품기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열망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기꺼이 있는 그대로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알지 못하는 한, 즉 자신의 은사에 만족하고 자신의 불행을 무지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는 한, 있는 그대로 남아 있지 않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일깨울 뿐만 아니라, 마치 손을 잡고 그분을 찾도록 인도합니다. 따라서 기관의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는 실제로 시작하기에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글쎄요, 그건 그에게는 그저 약간의 헌신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이 강의를 끝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끝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 어디에 있는지 상기시켜 봅시다. 강의 5, 강의 요약서 13페이지.

이 강의에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이 강의를 계몽주의 시대의 신학이라고 부르고, 이 강의에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교회, 조직된 기독교, 성경,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 등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이 어떻게 있었는지 보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종의 반발과 같은 반응이죠. 그런 다음 우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이라는 네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 네 곳에 대해 그런 종류의 반발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좋아요, 영국에서만 기독교에 대한 반응이 어떤 의미에서 꽤 측정되었다는 것을 상기하세요.

사실 그렇게 폭력적이지는 않았어요. 데이즘이었어요. 데이즘은 철학이었고, 신은 저 위에 있고 우리는 저 아래에 있고, 덕행을 쌓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좋은 기독교인의 가장 좋은 표현이라는 일신교 철학이었어요.

결국 유니테리언주의로 진화합니다. 매우 절제된 반응입니다. 다음 나라는 물론 프랑스였고, 우리는 교회에 대한 프랑스의 반응의 일종으로 자연주의를 언급했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프랑스의 반응은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그 좋은 예입니다. 영국의 반응보다 훨씬 덜 측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반응에 대해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피노자를 언급했고, 볼테르를 언급했고, 세 번째로 언급한 사람은 장자크 루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 파리로 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는 파리에서 많은 글을 쓰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프랑스의 대응에 대한 자연스러운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좋아요, 그는 그러나 꽤 절제된 사람이었고, 우리는 루소에 대해 네 가지를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두 가지를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루소에 대해 두 가지를 말했었나요? 합리성보다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었나요? 감정은 우리가 언급한 것의 특징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자연으로의 회귀, 고귀한 야만인 이미지에 대해 언급했었나요? 여러분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산업 혁명이 가져온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야 하고, 여러분은 그것에서 물러나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욕망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질투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그보다 더 덕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 알겠어요? 그리고 고귀한 야만인은 우리에게 그런 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언급했던 것 같아요. 중요성의 세 번째에 도달했나요, 아니, 알겠어요 ?

그래서, 루소에 대해 두 가지 더 말할 게 있는데, 계몽주의 시대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미국에 올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세 번째는 루소에게 이성이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의미에서 계몽주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매우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이 중요한 곳은 정부 형성입니다. 정부 형성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거나 가져야 할 정부를 형성하고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요점에서, 이제 루소의 날짜를 주목하세요. 원한다면, 여기 목록의 맨 위에 1712년부터 1728년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8 세기에 루소가 도전한 것은 왕의 신성한 권리였습니다. 왕의 신성한 권리는 없습니다.

정부는 신의 권리에 의해 제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합리적인 의지에 의해 제정됩니다. 그리고 국민은 정부 구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프랑스 군주제에 대한 진짜, 분명히, 아주, 진짜 도전이 됩니다. 그가 파리에서 가르치는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중 일부는 물론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루소가 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는 왕의 신성한 권리에 도전합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의지, 국민의 합리적인 의지에 의해 형성되고, 정부는 일반 국민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는 미국의 정부 형성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면 친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루소는 매우, 매우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로서 그는 미국 사고에 매우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도달할 때 그런 종류의 연결을 주시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루소와 함께 네 번째, 많은 작가들이 말했듯이, 루소는 일종의 시민 종교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교회의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가 아니었고, 확실히 정교회 기독교의 종교는 아니었지만, 시민 종교였습니다. 이제, 그 시민 종교는 무엇을 했고, 그 시민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이었을까요? 글썄요, 한 가지 특징은 신에 대한 믿음, 최고 존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 종교는 신, 최고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신이 없는 종교나 신이 없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종교, 1순위, 신.

두 번째는 개인의 불멸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시민 종교는 일종의 보상과 처벌을 믿는데, 이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사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개인적 불멸감이 있는데, 일종의 사후세계에서 보상과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종교의 관점에서 두 번째입니다.

좋아요,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좋은 삶, 덕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시민 종교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삶, 도덕적 삶, 덕이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관용의 원칙입니다.

관용의 원칙은 다른 사람, 다른 관점, 다른 종교 등을 관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용의 원칙은 확실히 시민 종교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직된 기독교 교파의 일부가 아니고, 조직된 기독교 교회나 그런 것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시민 사회의 구조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것들은 미국에서도 사실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루소를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종교에 대한 그런 종류의 관심은 여기 미국 땅에서도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C 번호입니다. 개요에서는 C이지만, 우리는 A를 소개하고, B를 영국, 데이즘에 대한 절제된 반응, C를 프랑스의 계몽주의 반응으로 했습니다. 자연주의였지만 제약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그럼 독일과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D로 가보죠, 독일로 가보죠. 지금 독일에 대해 제가 쓸 단어는 합리주의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범주로 돌아가 보죠. 하지만 확실히 합리주의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독일에서 이성온 현실을 이해하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과학 세계를 포함하여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면, 고든에서 과학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과학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면, 주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외부 세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성만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 대한 또 다른 점은 독일에서 얻는 것이 우주에 질서가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인간의 임무는, 그 질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활용하고, 그 질서를 사용하고, 그 질서를 사용하여 우리 삶을 정의하도록 합시다. 따라서 과학적 삶을 포함하여 삶을 정의하기 위해 질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독일에서 매우 중요해졌고, 독일 대학의 부상과 함께 그런 종류의 합리주의 철학이 꽤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볼 것입니다. 다른 날 언급했듯이,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예술, 음악, 미술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술적 표현의 측면에서 일종의 합리주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이든

음악이든,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헨델-하이든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이 헨델-하이든 협회에 속하고 싶다면, 제 아내와 저는 그 협회에 꽤 오랫동안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종류의 음악, 그 18세기 음악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것들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논리적이며, 매우 질서 정연하게 들립니다.

음악은 매우 질서가 있죠? 그래서 그게 중요해집니다. 좋아요, 이제, 이게 독일에서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이게 종교에서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입니다. 이 합리주의가 독일에서 종교적으로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글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에서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우선, 종교 전반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철학, 이 합리주의에서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모든 것이 질서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알려져야 진실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등등. 사실, 종교 전반에서 성경, 교회, 기독교 역사에 대한 매우 심각한 비판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할 수 없다면, 만약 당신이 종교를 생각한다면, 종교는 이성으로만, 이성으로만, 합리성으로만 측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성경, 교회, 그리고 많은 기독교가 문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비평이라고 부르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정말 심각하고 강압적인 성경 비평이었는데, 18세기에 독일에서 시작되었고, 19세기에 사람들이 성경, 기독교, 교회, 조직 종교 등을 매우 비판적으로 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예수의 역사성을 의심하기까지 할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역사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허구의 인물이라고 말했고, 복음서는 매우 늦게 쓰여졌으며, 예수를 이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냈지만, 나사렛에서 살았고, 갈릴리와 유대에서 사역했고, 로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등의 나사렛 예수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지금 독일에서 일어나는 매우 급진적인 성경적 비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교회와 교회의 사고방식에 도전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과는 루터교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교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국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교는 18세기에 독일에서 방향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방향을 바꾸었을까요? 글쎄요, 루터에 대해 우리가 잊고 있는 한 가지는 잠깐 루터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루터는 아시다시피, 매우, 실물보다 큰 인물이었지만, 그는 매우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일요일에 친절한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설교를 듣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루터에게는 창의성이 있었고, 루터에게는 상상력이 있었고, 복음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런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물보다 큰 인물을 가졌고, 루터 이후의 첫 세대의 루터교는 그런 종류의 특징을 띠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에 이르러서, 여기 맨 위에 있는 우리의 단어가 있습니다. 스콜라주의, 18세기에 이르러서, 18세기에 루터교 스콜라주의가 발전했습니다.

루터교회에서 발전한 것은 매우 죽은, 학문적인, 합리적인 종교였고, 일반 사람들은 일요일 아침에 루터교회에 가서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논문, 신학 논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루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성경이 살아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와 18세기에 정착한 루터교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에 대한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첫 번째는 일반적인 종교였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루터교와 관련이 있지만, 루터교인 그룹이 이것을 살펴보고, 이것이 교회가 의도한 바인가? 죽은 것인가요, 스콜라주의적인 것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루터교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고, 그래서 루터교를 다시 살리려고 할 것이고, 그 운동을 경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제 목록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강의를 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강의 계획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할 첫 번째 그룹은 경건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운동은 경건주의라고 불리며, 루터교를 다시 한 번 의도한 대로 살리는 것입니다. 좋아요, 독일, 독일의 이런 종류의 합리주의.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계몽주의 시대에 대응했지만, 교회에 대응하고 기독교에 대응하고, 때로는 교회, 기독교, 그리스도 등에 대한 가혹한 비판에 대응했지만, 이 세 나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잠깐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해안으로 와서 미국으로 와서 계몽주의 시대에 미국이 어떤지 봅시다.

좋아요, 그러기 전에, 오, 우리가 가진 용어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고든 칼리지에서 하는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든에서 41년째 일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미국의 계몽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매우 공감합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 미국의 계몽주의를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에 대해 괜찮을까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당신은 제가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것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잘 모르는지 봅시다 .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팔려고 하지 않지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는 단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가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저는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건국의 아버지들이죠. 그리고 저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좋아요, 제 전제는 이렇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공공 생활에서 만연한, 만연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미국 공공 생활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앙은 영국에서 건너와서 실제로 형태를 갖추고 형성되었고, 미국 공공 생활, 특히 미국 지성 생활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의 삶, 많은 사람들의 삶, 일부 교회의 삶 등등. 이제, 그것은 결국 유니테리언주의로 진화할 것이지만, 미국에서 최초의 유니테리언 교회는 혁명 이후에야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유니테리언 교회는 1785년이 되어서야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진화해서, 일종의 교파적 형태를 취해서, 사실 미국 혁명 이후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미국 혁명 기간 동안 형성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기서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럼 제 논제는 이렇습니다.

제 주장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본적으로 계몽된 신앙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몽주의 원칙을 받아들였고, 미국을 건국하면서 그들은 이 계몽주의 원칙을 잘 활용하여 그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것을 건국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제가 언급한 건국의 아버지들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열렬한 복음주의자로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우리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에 헌신하는 사람들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들을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국의 아버지들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 공공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어느 정도 미국 종교 생활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계몽된 신앙인으로 봅니다.

좋아요, 그럼 토마스 제퍼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제퍼슨 성경이라고 알려진 것을 개발했습니다. 제퍼슨 성경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퍼슨 성경, 토마스 제퍼슨이 제퍼슨 성경에서 한 일은 예수의 기적을 모두 제거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기적이 이야기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신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제퍼슨에 따르면 예수는 신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퍼슨 성경은 모든 기적을 없애고, 그가 그저 따라야 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로 끝납니다. 우리는 예수가 도덕적인 사람이었던 것처럼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행복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글쎄요, 신약의 기적을 없애고도 복음서의 예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은, 그냥 그렇게 하면서 복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이야기와 왕국 이야기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제퍼슨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계몽주의적인 종류의 신앙주의, 일종의 유니테리언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로부터 이어지는 것은 미국이 성경적 원칙이 아니라 계몽주의 원칙에 따라 건국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의 실제 건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원칙에 따라 건국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 원칙에 따라 건국되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계몽주의 원칙에 따라 건국되었습니다.

독립 선언서에서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만큼 잘 알고 계시죠. 독립 선언서는 우리가 이 진실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진실을 자명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다시 말해, 독립 선언서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성경적이라고 여긴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철학적 종류의 자명성, 일종의 상식적 현실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진실을 자명한 것으로 여깁니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포함됩니다. 물론, 데이스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구세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세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세주 하나님, 그들의 구속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언어는 매우 신앙주의적인 언어입니다. 자명한 진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일어난 일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의 공공 생활과 미국의 종교 생활에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일부 미국인이 유니테리언주의로 옮겨갔을 때 말입니다.

이제, 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에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데 있어 완전히 잔인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퍼슨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

계몽된 신앙인들은 기독교를 공격할 때 야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계몽주의 원칙, 신앙주의 원칙 등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랬고, 이것의 완벽한 예는 토마스 페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1737년부터 1809년까지라고 썼습니다. 토마스 페인이 이성의 시대에 하는 일 책의 제목인 이성의 시대를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으로부터의 계시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성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페인이 그의 책에서 하는 것은 그가 정말로 정교회 기독교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교회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정말 잔혹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가 책에서, 이성의 시대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 18세기에 통하는 유일한 것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성의 시대라는 책은 일종의 신앙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 이성, 사람들의 권리, 모든 사람들, 정치적 평등 등과 같은 것들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다시 말해서, 제퍼슨 같은 사람들은, 제퍼슨이 그런 종류의 잔혹한 공격을 하는 걸 보지는 않지만, 토마스 페인 같은 사람은 그의 책이 매우 영향력이 있었고, 정통 기독교에 대해 꽤 잔혹한 공격을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자연권을 지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상식, 이성,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것, 자연 신학, 그리고 모든 종류의 것들, 알다시피, 시민적 자유를 통해 그러한 자연권을 얻습니다.

좋아요, 이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질문하고 이야기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저 이것이 당시 인류학을 통한 신학이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와 18세기에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것은 인류학을 통한 신학이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인간적, 합리적 노력을 통해 신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종의 인간에 대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청교도들에게 직접적인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교도들을 떠올려 보세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도시, 보스턴을 떠올려 보세요. 플리머스의 순례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로드아일랜드의 로저 윌리엄스를 떠올려 보세요. 청교도들의 높은 칼빈주의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신학은 승영이 아니었고, 인류학을 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계시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적 생활과 종교적 생활이 일종의 인류학으로 전환, 엄청난 전환을 이룬 것입니다. 초기 청교도들의 높은 칼빈주의에서 벗어나, 최초의 청교도들은 아르미니우스주의 신학, 인간의 의지의 자유 신학으로 더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공 생활, 철학적 삶, 종교적 삶에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1620년에 상륙한 이래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2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순례자, 청교도, 순례자, 독립 선언서의 작성자, 예를 들어 건국의 아버지들을 쉽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일종의 높은 칼빈주의와 다른 한편으로는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의지의 자유에 대한 관심의 증가 사이의 쉬운 대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다음 세기에 올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과 종교 생활에서 이 신앙의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나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분간 이 문제를 열어서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제가 옳다면, 그리고 제가 옳다고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그저 여기서 사건을 제시하려고 할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옳다면, 만약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종교적 관점이 데이즘이었다면. 오, 저는 또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루소가 이 모든 것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루소를 읽고 있는데, 루소는 정부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왕의 신성한 권리는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지에 의해 형성됩니다. 정부는, 아시다시피, 아래 순서에 의해 형성되지 않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는 정말로 왕이 되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는 위에서 아래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국민의 의지에 의해 형성되죠.

그럼, 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좋아요, 그렇게 말했으니, 미국에서 데이즘의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제가 클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최종 결과는 자연 계시와 자연 신학에 대한 강조입니다.

자연 신학을 통한 자연 계시에 대한 강조, 주변 세계를 바라보고 주변 세계에서 보는 것에서 신학적 추론을 하는 것. 그것은 청교도들이 가르친 특별 계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좋아요, 두 번째, 이 모든 것의 두 번째 종류의 결과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신은 우주의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는 우주의 법칙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여기서 선입견에 따른 합리성, 자연 신학에 의해 스스로를 해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데이스트들이 말하듯이요. 우리는 신이 우주에 어떤 식으로든 침입하여 자신이 정한 자연 법칙을 방해한다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좋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미 언급했지만, 반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는 좋은 도덕적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좋은 도덕적 사람이고, 좋은 도덕적 모범이며, 우리는 그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CS 루이스가 어떤 의미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를 좋은 도덕적인 사람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는 주님이거나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둘 중 하나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중간적 입장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를 주님으로 보거나, 거짓말쟁이로 봅니다. 그는 그저 정신이 나갔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 번째죠, 알겠어요? 네 번째, 인간의 이성을 높이는 것,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사람들이 가진 이성적 능력, 심지어 과학적 수단을 통해 우주를 통제하는 의미에서, 점점 더 증가하는 과학적 수단,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원죄를 철저히 부인하고 심지어 근본적으로 죄스러운 행동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원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유전된 타락이나 그런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악적인 행동을 그렇게 많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꽤 좋은 사람들이었고, 꽤 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의 결과로 온 다섯 번째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행위에 의한 구원이었습니다. 윤리가 고양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행하는 선행으로 구원받습니다. 신은 당신이 행하는 선행을 호의적으로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온 것도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미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는 데이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민 정부의 형성에서 예시된 개정된 데이즘이며,

데이즘의 종교적 삶에서 예시된 것으로, 결국 유니테리언주의로 진화했습니다. 좋아요, 이것이 미국에 대한 제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 미국에 대한 주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요? 제가 당신에게 그것을 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청교도주의와의 관계에서, 건국의 아버지들 중 많은 수가 청교도주의가 있던 남부 식민지 출신이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양한 종교적 전통에서 나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청교도적 혈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중 많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실제로 영국 성공회 전통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나온 영국 성공회 전통은 영국에서 데이스트, 유니테리언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특히 남부에서, 왜냐하면 성공회가 남부에서 꽤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후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회 신도들은 영국인이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군주제를 지지했고 혁명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수가 꽃피운 데이즘을 가진 남부에서 왔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청교도 식민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시점의 청교도 식민지, 청교도 식민지는, 지난 강의에서 말했던 걸 기억하시죠. 우리는 상업주의가 커져서 복음주의적이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게 되었거나, 복음주의적이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상업주의가 커졌다고 말했죠. 글썄요, 지금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많은 회중 교회들이 유니테리언주의로 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심이 강했고, 법적으로는 아직 유니테리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최초의 교회가 유니테리언이 된 것은 1785년이 되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확실히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장에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혁명 동안 종교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적이지 않았어요. 혁명 동안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종교에서 돌아섰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유가 그들이 정치적 사건에 너무 깊이 관여해서 종교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명 당시에는 매우 열렬한 정치적 초점이 있었고 덜 종교적인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머스 제퍼슨과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경을 만들거나 조지 워싱턴과 같은 사람들이 복잡해졌는데, 우리가 아는 한 그는 교회에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회 신자였고 교회에 갈 때는 성공회 교회에 다녔지만, 그는 교회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정말 관여하고 교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죠. 그게 도움이 되나요? 비슷한 책으로 The Light and the Glory가 있습니다. 저는 The Light and the Glory에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게 The Light and the Glory에도 나오거든요. The Light and the Glory 같은 책에도 나오거든요. 증거가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증거는 반대로, 그가 데이스트였고, 기적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듯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맞아요, 절대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The Light and the Glory라는 책이 있는데, 수년 전에 읽었는데,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니다. 고든 칼리지의 Roger Green과 같은 교수들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말은, 사실 그는 그렇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신앙심이 없다고 가르치는 교수들이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복음주의자들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록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들이 복음주의자였다면, 독립 선언서는 읽히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읽혀야 했습니다. 자명한 주장이나 철학적 주장에 호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성경적으로 여긴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청교도들이 독립 선언서를 썼다면, 청교도들은 정확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청교도들이 1650년이나 그 무렵에 혁명에 맞섰다면, 청교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진리를 믿는다고 말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미덕을 주셨고, 우리는 이런 미덕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은 , 만약 청교도들이 선언문을 읽고 썼다면, 그것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서면 자료는 그들이 사용하는 신앙적 언어입니다. 하지만 아니요, 저는 당신의 요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걸 믿는 건 아니에요. 고든 칼리지의 모든 사람이 제가 믿는 것을 고수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고든에서 좋은 점은 우리가 보는 대로 가르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그들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었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언어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식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이야기 속에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로서의 신이 많이 있죠. 네, 좋은 지적이네요.

저는, 우리는 이미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는 복음주의자들, 여기로 온 침례교도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매우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옛날에 너무 억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형성된 믿음이었었습니다. 제 말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데이스트와 침례교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관점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분명히 공통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특히 우리가 가진 서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하세요. 그리고 원죄에 관해서도, 연방주의자 논문 등을 읽어보면, 그들은 인간에 대해 분명히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옳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들은 죄를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궤도에서 벗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를 매우 믿기 때문에 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는 기본적인 신학적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당신이 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자유 의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유전된 타락성이나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Episcopal이라는 용어는 미국 독립 전쟁 이후에 쓰였어요. 미국 독립 전쟁 이후에 쓰인 이유는 Anglican이라는 용어를 쓰면 진짜 영국인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성공회라는 용어를 써야 합니다. 워싱턴이 눈 속에 무릎을 꿇고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 질문은, 이것이 그의 삶의 일부였을까요? 하지만 좋은 지적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최대한 공평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수들이 자신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을 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 관점을 제시하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려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해 세뇌시키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가르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또한 미국 기독교에 대한 과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르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글쎄요, 여기서 논의할 만한 다른 게 있나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의심합니다. 그리고 제이슨, 당신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화가 난 목사와 함께 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데이스트라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강력하게 보는 장로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그 상태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는 그것을 읽고, 저자인 데이비드 번이 우리 국가가 건국된 곳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막 찾아보고 있는데, 그 책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토마스 넬슨은 실제로 출판을 중단했어요. 지금은 모든 비평가들에게 20페이지 분량의 응답을 게시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토론이에요. 공중에 떠 있어요.

그것은 논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논쟁이고, 그것은 자유주의자 대 복음주의자에 국한된 논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주의자이고,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제 말은,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가요? 구약에서 그는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루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 그가 지금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 지상에 있는 그의 몸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저는 그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것은 미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것처럼 한 나라를 다루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회를 다루시는 것인가요? 교회는 보편적이고 교회는 모든 나라에 걸쳐 있나요? 제 생각에는 가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비아에 있었고, 몇 년 전 잠비아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 국가, 저는 항상 미국에서 그것을 들었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결코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있었을 때 잠비아 대통령은 잠비아를 기독교 국가로, 잠비아가 신이 택한 국가이며, 이 세상에서 신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잠비아에 대한 그의 기독교 국가적 정체성이 매우,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른 나라에 적용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아마 잠비아에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 짐작하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게 있나요? 좋아요,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죠. 강의 요약 13페이지에서 어디로 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인 6번 강의에서 우리가 볼 것은, 교회에서의 복음주의 부활, 18세기, 19세기에 우리가 볼 것은, 정통으로, 교회로, 역사적 기독교로, 역사적 기독교의 뿌리로 돌아가는 진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5번 강의에서 우리가 본 것은, 특히 서유럽에서,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꽤 중요한 운동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의 경건주의를 살펴볼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각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우리는 웨슬리안 부흥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들은 교회에서 일어난 세 가지 주요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강의는 서유럽과 미국에서 세상이 가는 방식에 대한 이 세 가지 복음주의적 반응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꽤 긴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개로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강의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월요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